

보도시점 : 2024. 1. 12.(금) 06:00 이후(1. 12.(금) 석간) / 배포 : 2024. 1. 11.(목)

국내기업, 기술 개발로 항공기 부품 국산화 늘려 나간다

- B777 창문덮개 국산화 성공... 항공부품 국산화 위한 정책적 지원 뒷받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내 중소기업체인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Window Shade)에 대해 안전성 인증을 완료('24.1.12 국토부)하고 국내 항공사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객실 창문덮개의 안전성 인증은 ① 항공부품의 설계·양산체계에 대한 「부품등제작자증명」과 ② 양산된 개별 항공부품의 상태 등에 대한 「감항승인」이 포함된다.
-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를 국내 항공사에 1월 중 400개를 납품하고, 올해 총 1,6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면서 약 130만 달러(16.8억원) 규모의 외화를 절약하고, 항공사는 동일 품질의 저렴한 부품을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 B777 항공기 1대에는 약 150개의 창문덮개 장착되며, 국내 항공사에서는 총 62대(대한항공 49대 / 아시아나항공 9대 / 진에어 4대) 운영 중

- 우리나라 항공사는 주로 미국·유럽 등 항공 제작산업의 역사가 오래된 해외국가의 항공기 및 부품 제작사의 부품을 수입하여 이용함에 따라 많은 외화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은 항공부품 국산화 개발·인증 및 보급*을 통해 외화를 절감할 뿐 아니라, 국내 제작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항공 부품 제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 팔레트(15개), 컵 홀더(4,000개), 웨어디스크(1,000개), 창문덮개(1,600개)

-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안전성 인증’-‘상용화’로 연결된 4번째 품목으로서 우리 중소기업도 고부가가치 항공부품 제작 산업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 “항공사·부품제작업체 간 상생협력을 적극 유도하여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산 항공부품 공급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책임자	과 장 김완국 (044-201-4284)
		담당자	사무관 원정윤 (044-201-4285)
			주무관 김용규 (044-201-4288)



참고 1**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Window Shade)****□ B777 항공기 형상**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 장착 위치

□ 창문덮개 세부 규격

<창문덮개 형상>



<창문덮개 장착도>

구 분	내 용
부 품 명	Window Shade
장착대상 항공기	B777
장착 위치	객실 내 창문
제 작 사	(주)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
가로 X 세로(mm)	약 290 x 395(mm)

참고 2

항공부품 생산 · 납품 실적

부품명	제작사	납품일자	개수	비고
컵홀더	ANH스트럭처	'22.8월	1,000개	
		'22.10월	1,000개	
		'23.8월	1,000개	
		'23.12월	1,000개	
웨어디스크 (Wear Disk)	ANH스트럭처	'23.6월	1,000개	
팔레트	써브	'22.6월	15개	
창문 덮개	(주)지티에이 에어로스페이스	'24.1월 (예정)	400개	
		'24년 (예정)	1,200개	
총 개수			6,615개	